



취임 1주년을 맞는 서승원 대표이사
올해 업계 2위권 내 진입 목표...
메리알과의 통합은 법률적 검토 단계

글 | 김효진 기자(hj@chicken.or.kr)

메리알과 인터베트/쉐링푸라우가 통합하기로 했다고 지난 3월 9일 발표했다. 이 두 회사는 약 1년간에 걸쳐 통합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각자 별도로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.

이와 관련 인터베트/쉐링푸라우의 서승원 대표이사를 만나 현재 통합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.

올 4월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1주년을 맞이한다. 지난 1년간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?

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역시 조직의 재정비 및 고객 서비스 강화이다. 사실 2008년 통합된 이후 인터베트/쉐링푸라우의 조직은 흔들림 없었지만 내부 결속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팀장체계를 구축, 고객관리에 주안점을 둔 경영을 했다.

지난 한 해 사업의 핵심은 내부고객, 외부고객, 주요 고객과의 유대관계 형성 등 '서비스 마케팅의 삼위일체' 라고 할 수 있다.

내부 고객인 직원들에게는 개인의 능력배양과 기술관리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교육을 실시했으며, 외부 고객인 농가 등 제품이용 고객에게는 신종 질병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수의서비스와 CAV, 살모넬라 백신 등 신제품을 제공하는 등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으며, 마지막으로 주요 고객과의 장기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대군농장의 경우 혈청검사 및 모니터링 검사 실시, 지속적인 농가 방문, 장기적인 사업 전략 공유

등 고객차별화에 역점을 둔 한해였다.

무엇보다 지난해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견됐지만 인터베트/쉐링푸라우의 경우 신제품의 출시 및 관납사업의 비중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. 이는 평소 비즈니스 위기상황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끊임없는 교육을 통한 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조화로운 팀웍으로 이뤄낸 쾌거라고 말하고 싶다.

최근 메리알과 인터베트/쉐링푸라우의 합병 소식이 동물약품 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.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?

이미 알려진 대로 2009년 머크(Merk)사는 메리알(Merial)사의 지분을 팔고 인터베트/쉐링푸라우(Intervet/Schering-Plough)사를 인수한 바 있다. 이로 인해 메리알은 사노피-아벤티스(Sanofi-aventis) 소속의 회사가 되었다.

메리알은 머크와 사노피-아벤티스(Sanofi와 Aventis)가 1997년에 반반씩 투자하여 만든 세계적인 동물약품회사였다.

그런데 올해 인터베트/쉐링푸라우의 주주인 머크사가 사노피-아벤티스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노피-아벤티스와 인터베트/쉐링푸라우가 50:50으로 지난 3월 9일 통합하기로 발표한 것이다.

그러나 현행대로는 독과점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사에서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.

지난 한 해 인터베트/쉐링푸라우의 경영성과와 올해 신제품 출시 계획은?

2009년도 매출액은 2008년 보다 20% 정도 증가한 200억원 정도에 이른다. 이 중 양계분야의 매출은 약 70~80억원을 기록했다.

현재 인터베트/쉐링푸라우에서는 가금티푸스 생독백신인 SG9R, 중간독 플러스 감보로 백신인 228E, 뉴켓슬 생독백신인 ND Clone30 등 약 20여 종의 양계백신을 생산, 판매하고 있다.

올해 육계에서는 경쟁력 배제제인 아비가드를 출시, 시판 중에 있다. 아비가드는 정균 작용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생균제로 육계 농가에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한편 산란계, 종계에서의 살모넬라 복합예방 백신을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.

‘2009 동물약품 자율점검제’에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는데, 제품의 품질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오고 있는가?

인터베트/쉐링푸라우는 제품의 수입·보관·판매에 있어 ‘수입관리기준서’라는 내부 규정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품질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다. 이 규정에는 제품을 냉장보관 시 얼지 않게 하기 위한 온도관리 등 일반적인 약품 관리사항과 요주의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열쇠를 가진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등 주의 사항이 담겨있다.

그리고 제품이 판매되면 인수증을 3일 이내

에 꼭 받아 보관하고 있다. 이는 수량 파악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고객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. 또한 머크 및 쉐링푸라우의 경영진은 우수한 품질의 약품관리 및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.

올해 사업계획은?

인터베트/쉐링푸라우는 올해 동물약품 업계 2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이를 위해 올해는 통합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엇보다 내부 안정을 위주로 한 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. 이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뜻이다.

이와 관련 정부주의 관납 사업도 지난해 보다 확대할 예정이며, 앞에서 언급한 신제품 출시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.

또한 경쟁력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혈청검사 및 최근 유행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고객과의 유대관계 형성 및 장기적인 사업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.

본사가 1년 여 만에 또다시 메리알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서 대표는 외부적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. 직원들에게도 현재에 충실하며 고객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.

올해 업계 2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 대표의 이런 굳은 의지가 인터베트/쉐링푸라우의 향후 1~2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. <K>